

# 보건교사 없는 학교 '신종 코로나 사각지대'

### 전남 절반 가까이 배치 안돼

### 신종 감염병 증가 추세 속

### 예방 위해 인력 확충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학교 내 감염증 확산방지의 실질적인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신종 감염병이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만성적인 보건교사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1%이며, 소

규모 학교에는 단독 배치가 아닌 순회보건교사를 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서로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해 전남지역에는 현재 총 826개 학교 중 488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지만 40%에 가까운 338개 학교가 배치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총 248개 학교 중 88개(34.2%)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심각한 수준이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보건교사의 몫이다.

여기에 현황보고와 가정통신문 발송 등 행정업무까지 한 명의 보건교사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눈코 뜰 새도 없다고 보건교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에 전남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지금까지도 보건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건교사 확충과 지원 인력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보건교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도서지역 의료취약지 지정 등 보건교사 배치율을 61.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동네 방역 '우리 손으로' 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사회단체와 상가번영회 회원, 고려인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과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역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대표 원룸촌 상무 1동 환해지고 안전해진다

### 6억원 들여 환경정비사업

### CCTV·비상벨·가로등 설치

광주의 대표적인 원룸촌으로 인구밀집 지역이지만 밤거리가 어두워 사건·사고가 잦았던 '상무1동'의 길거리가 밝아지고, 방범시스템이 강화된다. 광주시 서구 상무1동은 전체 주민 2만 6000여 명의 40%인 1만여 명이 9000여개의 원룸이 따닥따닥 붙은 원룸촌에 산다. 6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 2838명)과 독거노인(504명) 등만 15%가 넘고 여성 단독 가구도 많다.

노인들과 여성들이 많은 사는 데 비해 환경은 열악하다. 골목길에는 CCTV도 부족하고 밤엔 어둡고 컴컴해 홀로 다니기에 불안해지는 주민들도 많다. 주민들이 불안할만 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새벽에 들어 가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원룸촌 일대 독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도 잇따랐다.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무 1동이 환하게 바뀔다. 원룸촌 곳곳에 비상벨과 CCTV가 설치돼 천천히 걸어도 날 만한 골목길로 꾸며진다. 9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상무 1

동 원룸촌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범죄에서 안전한 마을 조성에 나선다. 원룸촌 환경정비사업의 골자는 ▲CCTV·비상벨 설치(10곳) ▲가로등 설치·밤기 개선(6곳) ▲과속경보시스템 설치(3곳) 등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6억원)로 추진한다. 서구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마을 곳곳에 CCTV·비상벨 10개를 설치하고, 3억원을 투입해 골목길 구석구석에 가로등 100개를 설치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상일여고, 쌍촌역 인근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과속방지턱을 놓을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대·목포대 개강 2주 연기

### 기숙사 출입 발열 감지기 설치

광주대와 목포대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개강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대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 2일로 예정된 개강을 2주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숙사에는 출입자 발열 감지기를 설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기숙사를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의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목포대도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했다. 또 학생생활관 입사를 신청한 중국인 유학생 중 입사일(2월29일)을 기준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외협력관에 격리 조치하고, 국제교류교육원 객원숙소(20실)를 활용할 방침이다. /채희중 기자 chae@

### 광주 광산·북구

###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연장

광주 광산구와 북구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을 연장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만·18만 환자인 모녀가 입원한 병원이 있는 광산구 399개 어린이집과 87개 유치원은 오는 17일까지 문을 닫는다. 교육 과정을 이미 마친 곳들은 방과 후 과정까지 중단한다.

광산구에서는 27개 전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도 이 기간 중단된다. 광산구와 인접한 북구 305개 어린이집과 91개 유치원은 11일까지 휴원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중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전체 학교 체육 시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5   달뜨기 19:16  
해질 18:09   달뜨기 08:11

### 봄이 오는 소리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13	보성	맑음	-2/12
목포	맑음	4/10	순천	맑음	-1/13
여수	맑음	2/13	영광	맑음	3/11
나주	맑음	-2/13	진도	맑음	4/12
완도	맑음	4/13	전주	맑음	1/12
구례	맑음	0/13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1/13	남원	맑음	-3/11
해남	맑음	-1/12	흑산도	맑음	7/12
장성	맑음	0/13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북)	서~북서	1.0~2.0	남서~서	1.0~1.5
	면바다(남)	서~북서	1.0~2.0	남서~서	1.0~1.5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면바다(서)	서~북서	1.5~2.5	북서~북	1.0~1.5
	면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1.0~1.5

### ◇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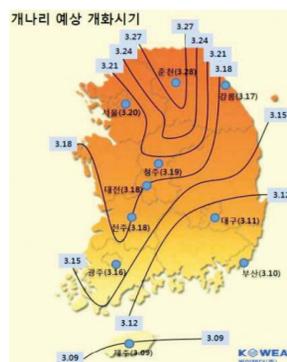
### ◇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	☁	☁	☁	☁	☁	☁
0/15	6/13	7/13	6/12	4/13	5/7	1/6

## 개나리·진달래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핀다

### 광주 3월 16일 개나리 개화

올 봄은 대체로 평년보다 따뜻한 봄꽃도 일주일 가량 빨리 필 것으로 보인다. 9일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 봄 광주지역 기온은 평년(1981~2010년)보다 따뜻한 것으로 예보됐으며, 봄의 전령인 개나리와 진달래 개화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올 봄 광주의 개나리 개화시기는 오는 3월 16일로, 평년 꽃 피는 시기(3월23일)보다 7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됐다. 진달래 개화시기도 3월19일로, 평년보다 8일 일찍 필 전망이다.



전북 전주 역시 개나리가 3월18일, 진달래는 3월21일에 개화해 평년보다 8~9일 가량 일찍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적으로는 개나리의 경우 3월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는 10~18일 사이에 피겠으며, 진달래는 3월12일 제주도와 부산 지역부터 피기 시작해 남부지방에는 17~28일 사이에 만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케이웨더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 꽃 개화시기가 다소 빨라지는 것은, 기온이 평년 대비 대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

라고 밝혔다. 케이웨더는 2~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등으로 북쪽의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잠시 '꽃샘추위'는 있겠지만, 올 봄 광주·전남의 기온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적으로 봄 꽃의 절정시기가 개화 이후 일주일 시점이라는 점에서, 3월16일~28일께 만개한 봄꽃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케이웨더의 설명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